

# 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의 모유수유 권장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WHO·UNICEF Breastfeeding Promotion Policies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모유수유(breastfeeding)는 아기와 엄마 모두의 건강에 유익하나, 모유량 부족, 일터로의 복귀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24조에서는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부모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sup>

생후 6개월 동안의 완전모유수유는 영유아의 위장관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으며, 생후 1시간 내 모유수유를 시작하면 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영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3개월 어린이에게 모유는 중요한 에너지 및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모유수유는 수유하는 어머니의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낮춘다. 그러나 이러한 모유수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0-6개월 영유아 중 36%만이 모유수유만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2)</sup>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이하 WHO라 함)에서는 어린이의 영양 보호를 위해 출생 후 최소 6개월 동안의 완전모유수유와 2년 이상 엄마 젖을 먹이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모유수유 권장사업으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aby-Friendly

1)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2)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42/en>) 2016. 3. 6. 인출

Hospital Initiative: BFHI)’,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운동(Mother-Friendly Workplace)’, 모유수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sup>3)</sup>

이 글에서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의 모유수유 정책 및 권장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 2.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유수유정책

2012년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65.6에서는 어머니·영아·소아영양에 대한 포괄적인 실행계획을 채택하였으며, WHO에서는 완전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시스템 수준, 지역사회 수준, 정책 수준의 실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4)</sup>

### □ 보건의료시스템 수준

보건의료시스템 수준에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의 성공적인 모유수유 10단계와 인증과정이 뚜렷하게 완전모유수유율을 증가시켰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영아와 소아에 대한 모유수유활동을 서비스 과정에서 훈련하고 서비스 참여 전 교육,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병원에서 인력 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모유수유 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 지역사회 수준

지역사회 수준에서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신 중, 출산 직후, 신생아 양육시기에 어머니에게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것이 완전모유수유율을 높였다. 6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력과 채널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 □ 정책 수준

국가에서는 모유수유를 보호하고, 생후 6개월 동안 완전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출산휴가가 길수록 완전모유수유기간이 길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분유 등 모유 대체품의 마케팅에 대한 입법화와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WHO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5년 완전모유수유율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5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의 활성화, 확대, 제도화를 포함하여 완전모유수유를 지원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기관 기반 역량을 제공한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이를 제도화하여 병원을 인증, 재인증하고 병원직원을 훈련, 감독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icef.or.kr/involve/mommy/index.asp>) 2016. 2. 29. 인출.

4) WHO(2014). Global Nutrition Targets 2025. Breastfeeding Policy Brief(WHO/NMH)/NHD/14.7)

해야 한다. 사업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기의 수와 분율을 조사해야 한다. 산전기간과 산후기간에 어머니와 어린이의 건강 연속선상에서 모유수유 증진과 지원을 통합한다.

- ② 지역 맥락에 적합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포함하여 완전모유수유를 지원하는 지역사회-기반 전략을 수립한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과 같은 병원기반 프로그램의 효과가 퇴원 후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리더와 지역사회 채널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메시지는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맥락에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일대일 상담과 그룹 상담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완전모유수유율 증가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병원과 지역사회가 정보를 제공하고 모유수유 실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경우 가장 효과적이었다.

- ③ 모니터링 강화,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및 관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모유 대체식품의 부적절한 마케팅을 뚜렷이 제한시킨다.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Inter-

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에 대한 법률 제정 및 기타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위반 시 효과적으로 제재한다.

- ④ 강제적인 6개월 유급 산후휴가를 제정하고 일터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모유수유를 격려하는 정책들을 실시하여 여성의 완전모유수유 역량을 강화한다.

일하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직장의 정책들이 모유수유를 지원해야 한다(일터에서의 아동 케어,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모유수유 공간 등).

- ⑤ 모유수유 보호, 증진, 지원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에 투자한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유수유방법 훈련과 함께 문제해결 및 카운슬링 기술에 대한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훈련 후 인력에 대한 추후관리와 멘토링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분야별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파악할 경우 훈련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모유 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관련 역할에 대해서도 훈련받아야 한다.

### 3.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

####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

대부분의 산모들이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출산 직후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모유수유를 지

속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의 환경이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니세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병원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인증하고 있다.

표 1.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병원은 의료요원을 위한 모유수유 정책을 문서화 한다.	병원은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포함하고 모유수유를 권고하는 명문화된 모유수유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2단계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원에게 모유수유 기술을 훈련시킨다.	어머니, 영아, 어린이와 접촉하는 모든 의료원에게 모유수유 정책 실행에 대해 교육했다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교육 방법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3단계	엄마젖의 장점과 젖먹이는 방법을 임산부에게 교육시킨다.	병원에 속한 산전 관리 클리닉이나 병동의 간호과 책임자는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상담을 해주어야 한다.
4단계	출생 후 30분 이내에 엄마젖을 빨리기 시작한다.	자연 분만을 한 산과 병동의 산모 중 무작위로 10명을 선출하여 그 중 80%가 출산 후 30분 이내에 적어도 30분 간 피부를 맞대고 아기를 안고 있었고 모유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 한다.
5단계	임산부에게 엄마젖을 먹이는 방법과 아기와 떨어져 있을 때 젖 분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친다.	무작위로 선택한 산모(제왕절개 포함) 15명 중 적어도 80%가 출산 후 6시간 이내에 간호사로부터 모유수유에 관한 도움을 받고, 젖을 짜내는 방법을 배웠거나 젖 짜는 방법이 명문화된 자료를 받았으며, 필요할 때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6단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갓난아기에게 엄마젖 이외의 다른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	적어도 2시간 동안 산과 병동에서 산모와 아기를 관찰한다. 엄마젖 이외의 음식을 먹고 있는 아기가 있으면 산모에게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지 묻는다.
7단계	엄마와 아기는 하루 24시간 같은 방을 쓴다.	건강한 아기를 낳은 산모 중 무작위로 선택한 15명(제왕절개 포함)의 산모 중 적어도 80%가 출산 후 자신의 입원실로 돌아온 후부터(제왕절개의 경우에는 의식이 돌아온 후부터) 진료를 위한 1시간 이하의 분리 기간을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아기가 산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
8단계	엄마젖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인다.	정상 아기를 출산한 산모 중 무작위로 선택된 산모 15명(제왕절개 5명 포함) 중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의 80%가 모유수유의 빈도나 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9단계	아기에게 인공 젖꼭지나 노리게 젖꼭지를 물리지 않는다.	무작위로 선택한 15명(제왕절개 5명 포함) 중 모유수유하는 산모의 적어도 80%가 우유병이나 빈 젖꼭지를 아기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
10단계	엄마젖 먹이는 모임을 만들도록 도와 주고 퇴원 후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무작위로 선택한 15명의 젖먹이는 산모(제왕절개 5명 포함) 중 80%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모유수유를 계속할 계획이어야 한다.

자료: WHO, UNICEF (2009).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Revised, Updated and Expanded for Integrated Care. Original BFHI Guidelines developed 199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icef.or.kr/involve/mommy/withus\\_hospital.asp](http://www.unicef.or.kr/involve/mommy/withus_hospital.asp)) 2016. 2. 29 인출

1990년 모유수유를 장려하는 이노세티선언(Innocenti Declaration)에 이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는 1991-1992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을 시작하였다. 2009년 가이드라인<sup>5)</sup>에 따르면 156개 국가에서 2만 개 이상의 병원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에 참여하고 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 평가도구 등이 개발되었고,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활용되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은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아기들이 출산 후 모유수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에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을 실행하는 5단계 전략이 제안되었다.

□ 1단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관련 기능을 만들거나 평가하기 위해 국가 모유수유, 영아 및 소아 영양 당국의 회의를 설립·활성화하거나 계획한다.

국가당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정부부처 간 협력 및 역할(분담) 조정, 지속적인 재평가과정의 규정화
- 진행 중인 메커니즘에 모유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지원 포함

- 국제기준에 근거한 목표 설정
- 영아 및 소아 영양 목표 달성(정부에서 정부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예산 및 예산선을 파악해야 함)
- 적절한 영아 및 소아 영양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종사자 훈련 기준의 감독 및 입법
- 아기에게 친근한 지역사회 등으로 운동 확대에 대한 기준 채택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등에 대한 원칙을 모든 관련 건강, 영양, 사회프로그램에 적용
- BFHI 코디네이션 그룹(BFHI Coordination Group) 필요시 기술적 감독 및 검토 제공
- 지정과정의 윤리적 측면 감독 및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예방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최소 매년 모유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데이터 평가

□ 2단계: 국가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목표 및 접근법을 설정하거나 재정립한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목표가 국가 또는 지역 프로그래밍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목표에 대한 활동이 최근에 없었을 경우 국가 수준 모유수유 및 보충식 현황, 지원활동,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위

5) WHO, UNICEF (2009).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Revised, Updated and Expanded for Integrated Care. Original BFHI Guidelines developed 1992.

치,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의 최신 실행기준 부합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초조사 및 문헌검토를 하는 것을 고려한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개념이 보건의료시스템의 다른 영역(모자보건, 소아과학 등)과 교육시스템 등 다른 부문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 3단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코디네이션 그룹(BCG)을 확인·지정하거나 개발한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코디네이션 그룹은 기관 지정 과정 및 절차 코디네이션을 담당한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코디네이션 그룹 개발과 병원의 평가·인증 접근법에 대해 8개 이상의 모델이 있다.

- ①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관 대상기준을 개발, 입법화, 실행한다.
- ②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평가기준을 모든 병원과 산부인과에 대한 국가적인 보건의료기관 인증과정에 포함시킨다.
- ③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을 전문가조직 또는 전문가 네트워크활동에 포함시키기를 권장한다.
- ④ 의료기관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지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는 시스템을 만든다.
- ⑤ 정부당국과 독립적인 1개 전문가조직, NGO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지정을 담당한다.

⑥ 관심 있는 전문가조직, NGO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지정과정을 관리하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신청하거나 지정위원회(designating committee)의 역할을 한다.

⑦ 관심 있는 전문가조직, NGO가 일부 지역에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지정과정을 관리하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신청하거나 지정위원회(designating committee)의 역할을 한다.

⑧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유니세프 국가 사무국에서 정부당국 및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코디네이션 그룹(BCG)이 설립될 때까지 매우 한정된 기간 동안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코디네이션 그룹 개발과 병원의 평가·인증 접근법을 지원할 수 있다.

□ 4단계: 정부당국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코디네이션 그룹(BCG)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고, 훈련계획과 교육과정 개정을 도우며, 국가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이 2세 이하 아동 대상 조사에서 수유상태를 조사하는 지 확인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 5단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코디네이션 그룹이 보건의료시설-기반 평가, 재평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인증 업무를 관리한다.

국내에서는 희망하는 병·의원, 조산원이 자가 평가지를 작성한 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 발송 하면, 자가평가지 분석,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되며,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재 평가를 실시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모유수유율과 함께 모유수유지원지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4년 전체 출산아의 7.79%가 아 기에게 친근한 보건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며, 인증받은 수유 카운셀러 수는 출산 1,000건 당 3.84명이었다.<sup>6)</sup>

#### 4.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직장을 가진 여성의 상당수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다시 취업을 하면서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1인 가구와 맞벌이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WHO와 유니세프는 여성들이 출산 후 복직한 후에도 모유수유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시설과 정책을 구비하고 지원하는 기업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임명하고 있다.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가 되기 위한 10단계는 <표 2>와 같다.

국내에서는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자가평가지를 작성하여 모유수유정책 사본과 함께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 발송하면, 자가평가지 분석,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되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

표 2.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가 되기 위한 10단계<sup>7)</sup>

단계	내용
1단계	출산 후 최소 3개월 이상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이외에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장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	모유수유를 하는 직원에게 파트타임 근무나 근무시간 조정, 업무 분담 등 탄력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한다.
3단계	하루 1시간 모유수(착)유를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4단계	직장 내에 혹은 직장 근처에 아기를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을 지원한다.
5단계	모유를 짜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6단계	모유수유를 하는 직장 여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동료와 경영진을 독려한다.
7단계	근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8단계	여직원들과 노조에 출산휴가 정책과 기타 권리에 대해 알려준다.
9단계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또는 탄력근무 시 여성에게 완전한 취업을 보장한다.
10단계	모유수유와 일을 병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직원 지원 네트워크를 만든다.

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4. 6). 2014 Breastfeeding Report Card.

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icef.or.kr/involve/mommy/withus\\_cop.asp](http://www.unicef.or.kr/involve/mommy/withus_cop.asp)) 2016. 2. 29 인출

## 5. 나가며

모유수유는 아기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다. WHO에서는 2025년 생 후 첫 6개월 동안 모유수유율을 5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8)</sup> 우리나라의 2012년 5-6개월 미만 주로 모유만 먹인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sup>9)</sup>로 2003년 29.5%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모유수유가 보건의료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기와 엄마에게 주는 편익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모유수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유니세프와 WHO에서 추진

하고 있는 모유수유 권장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전략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과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지정된 사업장이 아직까지 많지 않다.<sup>10)</sup> 더 많은 병원과 직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의 장해요인을 파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완전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통해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충분한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8) Global nutrition target 2025(<http://www.who.int/nutrition/global-target-2025/en/>)

9)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0)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22개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인증된 병원과 29개의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인증된 사업장이 있음.